삼구 경계에 떨어진 허수아비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⑨ 삼구(三句)와 삼요(三要)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 1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삼요(三要)의 도장을 찍으면 붉은 점획이 숨어버리니 주인과 손님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제 2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묘해(妙解)가 어찌 무착(無着)의 물음을 용납하리오. 하지만 방편으로는 어찌 번뇌의 흐름을 끊은 근기를 외면하리오."

"어떤 것이 제 3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무대 위에 노는 꼭두각시를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니라."

삼구(三句)는 선종에서 선의 요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온 용어다. 임제뿐만 아니라 여러 선사들이 선(禪) 수행에서 넘어야 할 관문처럼 이 삼구를 제시한 이들이 많았다. 각 선사들이 자신의 종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1구소식이 으뜸이고 2구는 1구에 못 미치는 경지이고 3구는 아직 선수행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句)라는 말은 간화선 수행에서 많이 써온 말로 사구(死句)니 활구(活句)니 하는 말로 쓰다가 1구니 2구니 3구니 하는 말로 쓰게 되었다. 이 밖에도 향상일구(向上一句)라는 말도 특별히 써왔다. 말에 죽은 말이 있고 살아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말이 언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말(死句), 말이 언어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것을 활구(活句)라 하였다. 동산수초(洞山守初 · 910~990)선사가 "말 중에 말이 있으면 죽은 말이요, 말 중에 말이 없으면 살아 있는 말"(語中有語 名爲死句 語中無語 名爲活句)"이라 하였다.

어느 스님이 임제에게 3구의 소식을 차례로 물었다. 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제1의 경지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말이다.

대답이 삼요(三要)의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글에 묻은 인주의 붉은 획이 숨어버려 찍혀진 자국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다. 주인과 손님, 다시 말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말 이전, 혹은 한 생각 이전의 소식이 일구라는 것이다. 삼요(三要)란 임제가 학인을 시험할 때 제시해 쓰던 특수용어로 삼현(三玄)과 짝을 이루어 임제의 종지를 선양하던 수단이 되었던 말이다.

제 2구의 대답은 문수보살과 무착선사의 일화를 의지해 말하고 있다. 무착선사가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갔을 때 오대산 입구에서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일화다.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떤가?"

"말세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며 삽니다."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혹 3백 명씩, 혹 5백 명씩 모여 삽니다."

무착이 문수에게 물었다.

"이곳에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대중들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후삼삼(前三三後三三)이니라."

문수가 무착에게 묻고 답한 것을 방편으로 무착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비록 문수가 근본지의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득지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3구의 이야기는 인형극 같은 것을 할 때 뒤에서 숨어 밀었다 당기는 사람에 의해 꼭두각시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3구에 경계에 떨어진 사람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 삼구의 이야기를 각각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의 경지라고 보기도 하고 1구, 2구를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으로 보기도 한다. 〈조계종 고시원장〉

육바라밀 '지혜' 세분한 사바라밀



세상 속 경전읽기

⑨ 대승의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해심밀경(海深密經)〉(5권)은 만법유식(萬法唯識) 사상을 주창한 유가(瑜伽)학파의 근본경전이다. 중국 법상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이 경의 한역으로는 현장(玄奘) 역 이외에 진제(眞諦), 보리유지(菩提流支), 구나발타라의 4가지가 있으며 특히 이 경에 대한 주석서를 신라시대 유식학자인 원측(圓測), 원효(元曉), 경흥(憬興)이 저술하였으나 이 중 유일하게 원측의 〈해심밀경소(疏)〉(10권)가 현존하여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원측의 주석서는 티베트 본으로도 남아 있어 이를 통해 한문본의 결락부분이 보충되고 있다.

〈해심밀경〉 '지바라밀다품 제7(地波羅蜜多品第七)' 서는 보살 십지(十地) 및 불지(佛地)를 다루었고,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이야기가 나온다. 육바라밀을 언급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한다. 여기에서 '선정(禪定)' 대신에 '정려(靜慮)'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지혜(智慧)' 대신에 '혜(慧)', '바라밀' 대신에 뜻번역인 '도피안(到彼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은 몇 가지나 있나이까?"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이 대략 여섯 가지가 있나니, 이른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정려(靜慮; 禪定), 혜(慧; 智慧)도피안(到彼岸)이니라." [世尊° 是諸菩薩凡有幾種所應學事° 佛告觀自在菩薩曰° 善男子° 菩薩學事略有六種° 所謂布施持戒忍辱精進靜慮慧到彼岸] 〈解深密經 T0676_.16.0705a04-7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수행법인 실천중도(中道)로서의 팔정도(八正道)나, 대승의 수행법인 육바라밀은 모두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의 근본수행으로 수렴될 수 있다.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는 삼학 중 혜학에 소속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학에 소속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학에 소속된다. 이때 정정진은 계정혜 삼학 모두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해심밀경〉 '지바라밀다품 제7' 에는 삼학 중 '정학(定學)' 을 '심학(心學)' 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증상(增上)' 을 접두(接頭)한 '증상계학', '증상심학', '증상혜학' 으로 표현하였다.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은 증상계학으로, 정려(선정)는 증상정학으로, 혜(지혜)는 증상혜학으로 분류하고, 정진은 계정혜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계학은 복덕의 자량이 되고, 혜학은 지혜의 자량이 되며, 정려(선정)와 정진은 복덕과 지혜 모두의 자량이 된다.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앞의 세 가지[布施, 持戒, 忍辱]는 가장 높은 계학[增上戒學]에 포섭되는 것이며, 정려(靜慮; 禪定) 한 가지는 가장 높은 심학[增上心學; 增上定學]에 포섭되는 것이며, 지혜(智慧)는 가장 높은 혜학[增上慧學]에 포섭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정진이 일체에 두루 적용된다고 설하노라."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원(願), 력(力), 지(智)의 사(四)바라밀을 더하면 대승의 십바라밀이 된다. 이들 사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의 지혜를 세분한 것이고, 육바라밀을 조반(助伴 · 짝으로 돕기)한다. 즉 방편(方便)은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을 조반하고, 원(願)은 정진을, 력(力)은 선정을, 지(智)는 지혜를 조반한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나머지 네 가지 바라밀다를 시설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앞의 여섯 가지 바라밀다와 함께 돕는 짝[助伴]이 되는 까닭이니라." [世尊。何因緣故。施設所餘波羅蜜多。但有四數 佛告觀自在菩薩曰。善男子。由前六種波羅蜜多爲助伴故。] 〈解深密經 T0676_.16.0705b10-13〉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이해의 길 35

천태법화, 진흙서 피어난 연꽃

〈天台法華〉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전에 따라 다양한 종파로 확대되고 교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종파(宗派)는 앞서 살펴본 격의, 교판과 함께 중국불교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다. 여러 종파 가운데 천태(天台)와 화엄(華嚴)은 철학적인 반면에 정토(淨土)와 선(禪)은 실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천태와 화엄은 중국의 교학불교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며, 두 종파의 성격도 사뭇 다르다. 화엄이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면, 천태는 진흙과도 같은 현실에 시선이 닿아있다. 두 종파 간에 세계관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의로 하는 종파다. 〈법화경〉은 본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준말인데, 대승불교 초기에 해당되는 50년경부터 15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이 경전이 설해진 장소는 그 유명한 마가다국 왕사성 부근에 위치한 영취산(靈鷲山)이다. 우리나라 불보사찰인 통도사가 자리한 영취산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붓다가 〈법화경〉을 설할 때 마가다국의 왕인 아사세와 대신들뿐만 아니라 1만 3천의 제자와 8만의 보살, 10만이 넘는 괴수(怪獸) 등이 참석한다. 그때 삼천대천세계의 국토가 진동을 하면서 땅이 열리고 무량 천만 억 보살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학자들은 "〈법화경〉은 인도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인도인의 상상력이 실크로드의 모래바람을 맞고 건너와 중국인의 사유와 만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천태종이다.

〈법화경〉을 우리말로 풀면 '진리(法)의 연꽃(華)' 경전이 된다. 그런데 청정하고 아름다운 백련이 서있는 곳은 다름 아닌 더러운 진흙 밭이다. 진흙은 부조리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세계를 상징한다. 천태종이 응시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연꽃으로 상징되는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는 중생들 삶의 터전인 현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피어날 수 없다. 비록 모든 것이 공(空)하다고 하지만, 온갖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천태종을 확립한 인물은 천태대사라고 불리는 지의(智顗)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왜 천태종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가 17세 되던 554년 조국인 양(梁)나라는 멸망하고 고관을 지냈던 부친마저 죽고 만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낀 그는 이듬해 출가를 한다. 그런데 제2의 조국인 진(陳)나라마저 수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두 번에 걸친 망국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천태학이라는 사상의 금자탑을 이루어냈다. 더러운 진흙 밭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낸 셈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글자 그대로 한 생각 속에 3천의 세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3천이나 되는 세계에는 극락과 부처도 있지만, 지옥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도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 지의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중생의 실존을 자신의 사상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법화경〉을 중시했던 이유도 '진리의 꽃(法華)' 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다.

천태의 입장에서 화엄은 지나치게 순수하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지의는 자신이 살았던 혼돈의 시대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천태의 시선이 화엄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불성의 현현(顯現)이라고 보는 화엄의 긍정적 세계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봐도 그렇다. 독재와 야만의 시대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